

‘코로나 직격탄’ 주저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광주, 지난해 음식점 2157곳 폐업...빈 점포도 덩달아 늘어 중대형 공실률 15% ‘전국 평균 상회’...대학가 상권 더 취약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한 해 광주지역에서 폐업한 가게가 늘고, 덩달아 빈 상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택한 광주의 일반음식점과 노래방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고, 휴게음식점은 17% 넘게 늘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5%를 넘어섰으며, 소규모 상가는 전국에서도 3번째로 높은 공실증가율을 보이는 등 광주경제계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일반음식점 폐업은 1576

건으로 전년(1447건)보다 8.9% 증가했고, 휴게음식점은 581곳이 문을 닫으면서 전년(496건)보다 17.1% 늘었다.

집합금지 명령 등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유흥주점의 폐업은 38건에서 69건으로 81.6% 늘었고, 단란주점은 18건 37건으로 105.6%나 증가했다. 노래연습장도 79건으로 전년(72건)에 비해 9.7% 증가, PC방도 118건에서 125건으로 5.9% 늘었다.

또 대면접촉을 피할 수 없고, 감염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업은 39건에서 219건으로 무려 491.9% 급증했고, 가급적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 탓에 의

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 폐업도 전년 52건에서 67건으로 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자영업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광주지역 상가의 공실률 역시 높아졌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광주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5.0%로 파악됐다.

전국 평균(12.7%)보다 높은 것은 물론,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연초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역시 6.3%를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의 연초 대비 공실 증가율은 서울(3.5%↑)과 대전(3.3%↑)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3번째로 높은 것이다.

특히 광주에서는 북구 용봉동 소규모 상가 공실이 무려 12.3%에 달하는 등 가장 높았고, 전남대학교 인근도 11.6%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대학가 상

권이 유동인구와 매출감소 등 코로나19에 취약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자영업계의 폐업과 지역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과 4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치로 인해 광주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31.7% 감소했다. 연말연시 성수기를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또 다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자영업자의 사정은 더 깊어지고 있다.

컨설팅전문그룹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박진석 사장은 “매출 감소가 누적돼 고정비용 지출과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상당수”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 이어지면 이들의 부담이 가중돼 결국 폐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22.56 (-17.75)
↓ 코스닥	985.92 (-8.08)
↓ 금리(국고채 3년)	0.982 (-0.025)
↓ 환율(USD)	1104.40 (-2.10)

코로나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개발

위니아딴채 1분기 출시

위니아딴채는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 개발에 성공해 올 1분기 출시를 준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니아딴채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대비해 계열사인 대우플러스와 백신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를 연구·개발, 최근 ‘메디박스’(MEDIBOX)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이밖에 관련 기술특허 3건도 출원 중으로, 김치냉장고 생산업체인 대우플러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제조허가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용량 90ℓ, 무게 65kg의 소형 초저온 냉동고로 1대당 1만8000명 분의 백신을 저장할 수 있다. 영하 80℃부터 영상 10℃까지 온도 설정이 가능해 백신마다 가자 다른 보관 온도를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크기가 작아 차량 등으로 운송이 용이하고, 유통 중 온도변화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위니아딴채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안전하고 쉽게 백신을 유통할 수 있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설 선물세트 최대 39% 할인 농협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농협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5일 동안 설 선물세트를 최대 39% 할인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가격대의 과일, 한우, 굴비 등 우리 농수축산물 선물세트를 행사카드로 결제 때 최대 39% 즉시 할인한다.

대량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상당 농산물 상품권을 증정한다.

구매 수량별 ‘덤으로 하나 더 증정’, 일정 금액 이상 구매고객 ‘무료택배 서비스’ 등의 혜택도 준다.

정구영 센터 사장은 “이번 특별행사를 통해 농수축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7일 농협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직원들이 설 맞이 특관을 벌이는 농수축산물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시행

광주전남중기청, 내달 12일부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월12일부터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도’가 전면 개편·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벤처캐피탈협회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평가와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수행하던 확인제도는 이번 개편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역할만 하는 대신, 민간 벤처생태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가 최종심의 의결을 하게 된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 그동안 보증·대출 유형에만 편중(87%)되는 등 혁신기업 선별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벤처기업확인 제도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개편됐다.

중기부는 벤처·창업과 관련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평가 실적과 기술평가인력, 중소기업 지원역량, 현장실사 가능지역 등을 평가했으며 확인 유형에 적합한 9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혁신성장유형’에는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역량을 보유하고 전국 평가가 가능한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연구개발유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한다. ‘벤처투자유형’은 벤처캐피탈협회가 요건 확인 기관으로 유지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췄다

중금리 신용대출 프라임 플러스론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프라임(Prime)플러스론’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은행권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 뿐만 아니라 실질 상황력은 있지만, 기존 보유 대출금액으로 인해 한도가 산출되지 않는 고신용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한다.

광주은행 측은 제1금융권 중금리 대출 상품의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면 언제든지 모바일(스마트뱅킹·모바일 웹 뱅킹)로 신청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광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와 공동으로 상품 개발을 진행했다. 다양한 항목의 자료 활용과 위험(리스크) 변별력이 확보된 ‘머신러닝’ 기법 등 새로운 평가모형을 도입했다.

조정민 광주은행 디지털사업부장은 “이번 상품 출시는 금융소외계층의 상환능력을 철저한 시장분석 및 최신 평가기법을 통해 파악해냄으로써 기존 상품과 차별성을 뒀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 실천과 함께 리스크관리 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인 창작자 육성 박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다중채널네트워크 기업과 협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1인 창작자를 육성하기 위해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기업과 협력하기로 했다.

진흥원은 지난 25일 MCN 기업 트레저헌터(대표 송재동)와 ‘MCN 기업성장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MCN 1인 창작자 육성지원 사업’ 추진과 광주 MCN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 ▲비즈니스 역량강화 컨설팅 ▲업계 전문가 계약 체결 등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MCN 기업성장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인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2급’ 자격증 취득과 일대일 상담, 광고 계약 체결 등을 돕는다.

/백희준 기자 bhj@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lovelyline4u.com

신세계 선이고운치과교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0(농성동) 밝은클리닉 5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천변방향 T. 062) 367-2279 | F. 062) 367-2280

원장 | 교정전문 이기현 | 김고운

www.chhospital.com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시험관아기기술 · 복강경수술

서구 무진대로 957번(광천동) 대표전화 062.368-1700

건강한 생명, 행복한 미래

전남대학교병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원장 안영근

통합콜센터 1899-0000 응급의료센터 062.220-6801

CHOSUN UNIVERSITY HOSPITAL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정종훈

대표전화 062)220-3114 | 종합건강증진센터 062)220-3030
진료예약 062)220-3006, 3009 | 진료협력센터 062)220-3989
광역응급의료센터 062)229-3119 | 홈페이지 https://hosp.chosun.ac.kr

JONGANG HOSPITAL

중앙병원

심장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인공신장실, 재활한방과

내과전문의의약품사 내과전문의의약품사 이강수 홍순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4(화정동) T. 062.456-6600 F. 062.456-6601

마음까지 치료하는 더 큰 사랑

침담중합병원 CHEODAN MEDICAL CENTER

병원장 양원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담중앙로 170번길 59(쌍암동 665-1)
대표전화 : 062)601-8000 응급의료센터 062)601-8119
홈페이지 : www.cheodan.hosp.co.kr